

외래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

신민선*, 이원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경원대학교 의료경영학과

■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인들의 주요한 건강문제인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의 원인으로는 흡연, 음주, 식이, 운동 등의 개인의 올바르지 못한 건강행태를 들 수 있다.

의료이용의 원인은 건강행태 외에도 사회경제적인 요인인 월평균가구소득, 의료보험의 종류, 거주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직업의 유무 등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앤더슨 모형을 중심으로 건강행태가 외래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표본 :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를 2차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비례배분계통추출법을 통하여 표본 4,594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모형 : 건강 생활습관은 사회적·심리적·생리적인 요인과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하는 맥락적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앤더슨 모형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 : 최근 2주간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2회 이상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 : 맥락적 상황을 고려하여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SPSS 14.0K for Windows와 SAS 9.1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지역적 변수를 통제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1) 최근 2주간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는 30.7%, 외래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는 69.3%이었다. 2주간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는 최소 1회부터 14회까지의 범위였으며 평균은 1.83회이었다. 외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질병이 82.9%, 사고중독이 3.4%, 기타(검진, 임신 등) 13.7% 등으로 나타났다.
- 2) 최근 2주간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의료급여 1종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확률이 높았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의 질병력을 함께 지니고 있는 사람, 과체중 이상, 문제음주자 일수록 외래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 3) 최근 2주간 외래서비스이용 횟수가 2회 이상인 응답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도시지역 거주자, 소득이 높은 집단, 과체중 이상, 문제음주자일수록 2회 이상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에, 민간의료보험 보유자, 직업 보유자,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자,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고혈압과 당뇨 환자, 흡연자들은 2회 이상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낮았다.
- 4) 지역을 임의효과로 한 혼합모형으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고졸 이상자와 사고·중독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외래서비스 이용횟수가 더 많았다.

■ 결론 및 제언

소득이 낮을수록, 민간보험을 소지하고 있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촌일수록 외래서비스 이용이 적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의료이용 확률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 비해 낮아 건강보험에 의한 의료이용의 비형평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과체중·비만과 문제음주가 의료이용 확률과 횟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지역을 임의효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사고·중독의 사유와 고졸자 집단의 의료이용 횟수가 많았다.

의료이용 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맥락적 상황을 고려하는 연구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